

# “돌고 돌아 마침내 시의 세계로 돌아 왔어요”

이형권 시인 40년만에 ‘칠산바다’ 펴내  
남도 감수성·우리문화 열정 오롯이 담겨  
문화유산 관심 많아 답사 관련 글·강의  
80년대 시화전 등 통해 문예운동 참여도



“원래부터 떠돌이 기질이 있었습니다. 민속이나 민요, 무속 같은 분야에 관심도 많았구요. 그러다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지요.”

고교 시절 여러 백일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대학(전남대)에 진학해 1학년 때 신문사 현상 공모에 시가 당선해 주위를 놀라게 했던 이형권 시인. 그러나 정작 그는 시인의 길을 걷지 않았다. 내면에 움튼 시에 대한 열망을 억누르고 파란의 시대를 건너왔다.

그가 돌아왔다. 80년대 광주에서 이십 대를 문학청년으로 보낸 이라던 이형권 시인의 이번 첫 시집을 받아 든 순간 ‘마침내 그가 돌아왔다’는 반응을 보일만하다. 마치 연어가 자기가 태어난 곳을 기억하고 수천, 수만의 길을 돌아 찾아오듯 말이다.

시인은 “오랫동안 돌고 돌아 마침내 시의 자리로 돌아왔다”며 감회어린 안부를 전했다. 김형수 시인은 “그가 기왕에 걸어온 길의 출구이자 다시 새로운 또 하나의 입구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러므로 이번에 펴낸 시인의 첫 시집 ‘칠산바다’(문학들)는 40여 년만에 펴낸 첫 창작집이자 ‘청춘의 비망록’인 셈이다. 그는 분명 시를 쓸 수밖에 없는 운명까지는 거스를 수 없었다.

“대학 때 용봉문화회에 가입해 문학활동을 했습니다. 국문과 동아리인 비나리에서도 선후배들과 함께 시 공부를 했구요. 당시는 문학을 통해 세상에 대한 모순을 고발하고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열망을 꿈꾸던 시절이었습니다.”

이 시인은 그렇게 시 공부를 했다. 그러다 틈틈이 문화유산 쪽으로 지평을 넓혀갔는데 당시 이태호 교수의 ‘한국미술’ 강좌가 계기가 됐다. “이태호 교수님 시작으로 풀어진 남도문화에 대한 아름다움과 깊이에 매료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졸업을 하고나자 진로에 대한 고민이 시작됐다. 이후 그는 서울로 올라가게 된다. 그리고 유희중 교수가 이끌던 ‘겨레미술공부방’ 연구소에 합류한다.

“답사를 하면서 문화유산과 관련된 다양한 글을 썼습니다. 그런 연유로 ‘나의 문화유산을 찾아서’라는 책을

발간하기도 했지요. 이후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답사와 관련한 강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답사와 글을 쓰는 일을 병행하게 된 이유다. 전 국토의 대부분을 가봤을 정도로 안 가본 데가 없다. 우리 산하를 떠도는 동안, 문득문득 그의 내면에는 시심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애써 억눌렀던, 아니 잊은 줄 알았던 시에 대한 그리움이 불현듯 명치끝을 타고 올라왔다. 그렇게 한 줄, 두 줄, 자신만의 창작 노트에 시를 옮겨 적었다.

이번 시집은 ‘떠돌이의 기록’인 셈이다. 우리 국토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거기에는 절절한 아픔과 슬픔, 더러는 그리움이 배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젊은 시절에는 “세상을 바꿀 것처럼 목소리를 높여온 했지만” 혼자 여행을 하면서 느낀 점을 시로 옮겨 적으면 “알게 모르게 위안을 얻는다”고 한다.

80년대 그는 시를 통해 세상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82년 ‘5월항쟁’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이승철, 박선욱, 조진태 등과 ‘광주 젊은 벗들’을 결성해 시낭송 운동과 함께 시화전을 열었다. 이후 1988년에는 ‘광주청년 문화회’를 결성해 문예운동에 참여하기도 했다. 1990년 진보 문예지 ‘녹두꽃’과 ‘사상문예운동’, ‘창작과비평’ 등에 시를 발표하기도 했다.

그 때문일까. 이번 시집에는 청춘시절의 뜨거움과 이

후 답사를 하면서 느꼈던 우리 땅 우리 문화에 대한 열정, 그럼에도 시인의 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운명 등이 오롯이 배어 있다.

“지금도 칠산 바다에 가면/ 빈 마을 어귀로 속병 앓는 불빛이 들어오고/ 해안으로 기어오르는 바다 울음소리/ 물론 개펄 위에 해초들과 누워/ 먼 곳으로 보내는 신호처럼 내 곁에 일렁이고/ 지금도 칠산바다에 가면/ 열린 눈물같이 침몰해가는 겨울...”

표제시 ‘칠산바다’는 뛰어난 서정시다. 남도의 감수성과 문화에 대한 미학이 버무려진 절정이다. 전통적 가락과 구슬프면서도 아련한 정조는 어쩌면 시의 세계로 돌아온 자신에 대한 위로일 수도 있다.

“대학시절엔 선각자적 입장을 노래했기에 이후엔 투사가 되거나 농민이 돼야 하는데, 나는 그러지 못했어요. 지식인의 길을 선택했기에 현실과의 괴리로 시를 쓰지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 저의 변명이지만요. 이제는 저의 감성을 담은 시를 쓰고자 합니다.”

고향이 해남인 그는 곧잘 남도에 들른다. “많은 곳을 다녔지만 남도만큼 풍부한 문화유산을 간직한 곳은 없다”는 말에서 전라도에 대한 애착이 느껴진다.

한편 광재구 시인은 추천사에서 “40년 만의 첫 시집 ‘칠산바다’ 속을 배회하며 걷는 동안 시는 세월보다 위대함을 느낀다”고 평하고 김호균 시인은 “그의 ‘저 홀로 피었다 지는 붉은 꽃’처럼 쓸쓸하고도 적막한 아름다움은 그동안 잠들어 있던 우리의 감각을 깨운다”고 덧붙인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임란 극복한 나주 출신 김천일 의병장 일대기

정찬주 ‘영산강의 꿈’ 펴내  
임란 명장 시리즈 3번째 장편



순절한 지 25년 만에 영의정으로 추증된 의병장이었다. 나주 출신 김천일 의병장(1537-1593)이 주인공이다. 조선 역사에서 의병장이 영의정을 추증받는 것은 아주 드문 일이다. 그만큼 김천일의 인품이 돋보이고 충의가 높았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정찬주 작가가 펴낸 ‘영산강의 꿈’(여백)은 김천일 의병장을 모티브로 한 장편 소설이다.

‘영산강의 꿈’은 정 작가의 임진왜란 명장 시리즈 3번째 장편소설이다.

저자는 역사 교과서에 소개된 단 몇 줄의 김천일은 그의 의로운 생애 비하면 너무 피상적이라고 생각했다. 이번 작품은 작가가 ‘조선왕조실록’과 ‘간재 김천일전집’ 등을 독파하고 유적지를 답사한 뒤 집필을 했다.

김천일은 종종 32년 나주 흥룡마을에서 태어났다. 불행하게도 출생한 지 이틀 만에 모친을 잃었고 일 년도 안돼 부친마저 여한다. 외조부모 밑에서 자란 그는 15세 때 담양의 숙부를 찾아가 글을 배운

다. 37세 때 나주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다 초야인재로 발탁돼 정계로 진출한다. 이후 토지개혁을 추진하다가 왕실 권력층의 비방과 탄핵으로 파직당해 귀향한다.

그러다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김천일은 나주에서 선조 25년(1592) 5월 16일 창해 6월 3일 출병한다. 강화도로 들어가 양화도전투와 한양왜군 교란작전 등을 수행하고 남하하는 왜군을 추격해 진주성에 이른다. 그러나 10만 왜군과 맞서 싸우다가 중과부적으로 남강에 투신, 순절한다. 왜군 역시 큰 타격을 입고 부산 등으로 후퇴했는데 결과적으로 김천일 의병장은 국창지대인 호남과 조선을 지켜낸다.

저자는 “작가인 나로서도 김천일 의병장에게 매료된 것이 있다면 문무와 충효를 두루 갖춘 한국인이었다는 점”이라며 “이는 한국인이란 결코 잃지 말아야 할 한국인의 참모습을 지닌 분이었던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를 만나다



백주영·이진상 전곡 음반발매  
23일 유·스퀘어 금호아트홀

바이올리니스트 백주영과 피아니스트 이진상이 지난해 12월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기념해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10곡 전곡을 세 장의 음반에 담았다. 10곡 전곡이 리사이틀 무대에 올려진 적은 있었지만 음반으로 발매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두 사람은 이를 기념해 23일 오후 7시 30분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리사이틀을 갖는다.

이날 공연에서는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4·5·9번’을 들려준다.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기악과 교수로 재직 중인 백주영은 예원학교, 서울예고를 거쳐 커티스 음악원에서 학사학위를, 줄리어드 음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맨하탄 음대, 프랑스 파리 국립음악원에서 최고 연주자과정을 마쳤다.

이진상은 2009년 스위스 취리히 게자안다 콩쿠르에서 동양인 최초 우승과 동시에 대위 최우수상, 모차르트 상 그리고 청중상의 모든 특별상을 휩쓸며 이목을 집중시켰다. 서울예고 수석 입학,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재입학 및 부산음악콩쿠르 대상 등을 차지해 주목받았다.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 광주문화재단, ‘예술인파견지원사업-광주예술로’ 공모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황풍년) 예술인보듬소통센터는 ‘2021년도 예술인파견지원사업-광주예술로(路)’(이하 광주예술로) 공모를 시작했다.

광주예술로는 지역예술인과 기관(마을)의 협업을 매개로 예술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문화재단은 지난 2월 운영기관으로 선정돼 4억 3000여만 원을 확보했다. 1개소별 5명 예술인(리더예술인 1명, 참여예술인 4명)을 매칭해 기관(마을)-리더예술인-참여예술인 활동을 지원한다.

이번 공모는 ‘기업·기관(마을) 모집’과 ‘예술인 모집’ 등 2개로 나눠 진행된다. ‘기업·기관(마을)’은 11개소를 최종선정하며 ‘예술인’은 리더 예술인 11명, 참여예술인 44명 총 55명을 선정한다. 리더 예술인은 월 140만원, 참여 예술인은 월 120만원 활동비가 지원되며 총 30시간 이상 활동해야 한다.

신청 분야는 제한이 없으며,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으로 주민등록상 광주시 거주

예술인이어야 한다. 단, ‘2021 창작준비금지원-창작디딤돌’ 및 ‘2020 예술로 기획사업’ 등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을 지원받은 예술인은 제한되며 ‘광주예술로’에 선정된 예술인은 고용보험 가입이 필수다.

1차는 기업·기관(마을) 11개소와 리더 예술인 11명을 31일까지, 2차는 4월 12일-21일까지 44명을 모집하며, 예술인은 1차 모집된 ‘기업·기관(마을)-리더예술인’과 매칭해 4월말 최종 결정된다. 희망자는 문화재단 홈페이지 제출서류를 내려받아 이메일(artbodum@naver.com) 접수하면 된다. 문의 062-670-5723.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작은 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b>써니헤어샵가발</b> 나주시 성북동 4거리 삼성디지털프라자 옆 최신식 두피 케어 전문 컷트, 파마, 염색, 탈모관리, 히피펌 전문 <b>전화예약 ☎ 010-3996-0489</b>	<b>대신청소전문기업</b> 광주광역시 북구 복문대로 154, 2층 학교청소, 공장청소, 업소청소, 외벽청소 현장청소, 준공청소, 입주청소, 거주청소 이사청소, 해충방제 <b>☎ 062)526-1133, 010-6522-1524</b>	<b>첨단 돌솥 감자탕 산포점</b> 전남 나주시 산포면 산남로 96 <b>☎ 061)332-6108</b>	<b>행정심판전문행정사 행정법인 맥 행정법률사무소</b> 북구 유동 41-6번지 행정사 김유승 <b>☎ 062)523-5885, 010-5665-0150</b>	<b>평강안마지압원</b> 북구 임동 191-13 서림초등학교 후문 앞 만성피로 및 각종 통증관리 근육통, 3차 신경통, 요통, 관절염, 좌골 신경통 국가공인안마센터 <b>☎ 062)527-6664, 010-2645-6664</b>	<b>문화결혼상담소</b> 북구 북동 242-4번지 초혼·재혼 상담 작명, 궁합, 풍수지리 <b>☎ 062)529-0315, 010-3606-5632</b>
<b>동양철학원</b>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시장 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 함. <b>☎ 062)224-7687, 010-2611-7687</b>	<b>필스제화</b> 동구 산수동 553-73(산수5거리 옛물다리쪽) 구두수선 남화·여화창 굽같이 가방지퍼수선·염색·광택 <b>☎ 010-4755-9294</b>	<b>새희망 직업소개소</b> 광주광역시 북구 복문대로 154, 2층 남·여 인력 향시모집 <b>☎ 062)531-5511, 010-6522-1524</b>	<b>국수나무 광주용봉점(비엔날레)</b> 북구 용봉동 1091-4(M-타워 KB국민은행건물) 모든 메뉴 포장 및 배달가능 직접전하 및 배달앱 주문(배달의민족, 요기요) <b>☎ 062)526-5475, 010-8621-5959</b>	<b>In.ssalon_sia</b> 동구 경양로 234 그랜드센트럴 119동 807호 휴무 : 매주 월요일 영업시간 AM. 10:00 ~ PM. 8:00 <b>☎ 062)233-1202</b>	<b>석당화랑</b>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b>대표 이석재 ☎ 062)222-3118</b>
<b>고전방</b> 동구 공동 34-4(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b>대표 김화중 ☎ 062)224-4869</b>	<b>남도철학원</b> 북구 전변우로 79번길 87(임동) 수강생 수시모집! 사주, 작명, 출산, 택일 명리비전으로 수강생 개인지도 <b>☎ 062)522-9653, 010-8645-2254</b>	<b>신신예술의집</b> 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b>대표 서태석 ☎ 062)222-1936</b>	<b>보광세탁소</b> 동구 지산1동 동명로 73-2(구농장대리앞) 각종의류세탁, 양복·양장 각종의류 수선전문점소 <b>☎ 062)227-6815, 010-6681-5412</b>	<b>보물섬희활어회 직판장</b> 동구 산수동 556-58 (광주은행 앞) 프랜차이즈, 홀손님 환영 포장전문, 각종회 산지직송 산수직영점 <b>☎ 062)234-8882, 010-3621-0123</b>	<b>초대화랑</b> 동구 공동 54-2번지(예술의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b>대표 임해택 ☎ 062)222-2516</b>
<b>드림케어슬루션</b> 동구 금남로 161-11 금오빌딩 3층 의류기기도·소매 온·냉 알칼리 이온수기 5분도실(황미쌀) 즉석 도정기 <b>☎ 010-3118-5679</b>	<b>박당화랑</b> 동구 공동 51-18번지(예술의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대 및 감정 <b>대표 박환승 ☎ 062)222-6866</b>				